

- (1)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가 331장을 부릅니다. (2) 구역 식구 중 한 분이 기도합니다.
(3) 사도행전 3장 11~16절(신191)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4)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5) 찬송가 73장을 부르고, 봉헌한 이후 봉헌기도 합니다. (6)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구역예배를 마칩니다.

<인터넷 참조> <http://www.pckyesan.or.kr>으로 접속, 7월 19일자 주일예배 말씀

<생각하기>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주목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존경과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상황에서,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의 주목을 옮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설교의 요약>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한 내용 중 앞부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앓은뱅이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오랫동안, 성전의 미문에서 구걸하던 병자였던 사실을 알던 백성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놀랍니다.

이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크게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물려듭니다. 이제 이들을 앞에 두고,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설교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베드로와 요한의 권능과 경건으로, 앓은뱅이 거지가 낫게 된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친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을 보면, 베드로가 앓은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앓은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 사람을 걷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 이적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 때문인 줄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도구와 그릇 삼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하나님께 고용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주목할 일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끗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실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에녹과 함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홀로 싸우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기도했을 때, 삼 년 육 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이만하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정’을 사전에서는, ‘성질과 심정. 또는 타고난 본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한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낮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한 베드로는, 그들이 주목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앓은뱅이 거지가,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요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므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낮게 하였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인 동시에, 믿음의 주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생겨난 믿음, 예수의 영이 역사하여 생겨난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산의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며,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인류의 참된 소망임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누기〉

1. 시간이 지나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임을 깨달은 사건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아닌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주목받고 싶은 유혹과 욕심을 물리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는 다만, 도구와 그릇과 통로일 뿐이오니,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이 상징하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사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주목하는, 예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